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이복규***

<차례>

- 1. 머리말
- 2. 中朝聞見日記인가 漂海錄인가?
- 3.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작자 최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 해양문학의 대표작인 최부의 <표해록>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이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다. 역사 또는 정치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¹⁾가 가장 활발하고, 서지적인 접근²⁾도 이루어졌으며, 번역본에 대한

검토³⁾도 있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해양 인식이 민요나 다른 기록문학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⁴⁾, 기행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에 표류와 중국 체험을 텍스트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화(필담)’ 형식이라는 특유의 글쓰기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는 시도⁵⁾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작가 최부에 대한 고찰⁶⁾도 있었다. 본격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소개 차원에서 기술된 글⁷⁾도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에 주목하지 않았거나 자세히 다루지 않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작품 또는 이 작품에 대해 연구한 글들

동국사학 37(동국사학회, 2002) : 조영복, 근세 동아시아 삼국 전통사회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최부의 표해록과 일력 『당토행정기』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4(동양사학회, 1998) : 박원호, 15세기 조선인이 본 명(明) “홍치중흥(弘治中興)”의 조짐(兆朕)-홍치(弘治) 원년(1488)의 최부 『표해록(漂海錄)』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18(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5) : 박원호, 『명대 조선 표류민(漂流民)의 송환절차와 정보전달-최부 『표해록(漂海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4(명청사학회, 2005) : 홍성규, 『최소자 교수 정년기념 특집호 : 논문 : 두 외국인의 눈에 미친 15, 16세기의 중국-최부 『표해록(漂海錄)』과 책언 『입명기(入明記)』의 비교-, 『명청사연구』 24(명청사학회, 2005).

2) 박원호, 『최부 표해록 판본고』, 『서지학연구』 26(서지학회, 2003).

3) 박원호, 『최부 표해록 번역 술평』, 『한국사학보』 21(2005).

4) 이경엽, 동아시아의 도서, 해양문화 연구 : 연구논문 :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어부가, 표해록(漂海錄), 어로요(漁撈謠)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0(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2).

5)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립과 관료의 중국체험』, 『한국문화연구』 10(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문학과 교육』 13(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1~66쪽.

6) 김기주, 『표해록』의 저자 최박 연구, 『역사학연구』 19(호남사학회, 2002) : 김기주, 『조선중기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정치활동』, 『역사학연구』 24(호남사학회, 2005).

7) 장덕순, 이국기행의 금남표해록, 『한국수필문학사』(박이정, 1995 재간본), 120~131쪽 : 최래욱, 『漂海錄 研究』, 『비교민속학』 10(비교민속학회, 1993), 221~255쪽.

* 이 논문은 한국고시가문학회와 (사)온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학술대회(2008. 6.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중 게재 논문이 아님.

** 서경대학교

*** 이 글을 구두발표했을 때 토론자로 참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박준규 선생님께 사의를 표한다.

1)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 《표해록(漂海錄)》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동국사학회, 2002) : 주성지, 『표해록을 통한 한중항로 분석』,

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의문들이기도 한데, 그간의 글들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고 보여 이 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이 작품의 표제 문제이다. 주지하는 대로, 이 작품의 표제는 <중조문견일기>와 <포해록> 두 가지로 존재한다. 둘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 어느 한 쪽만 적합한 것인지 필자에게는 의문이다. 또 하나는 집필재 김종직의 제자로서 유교 사대부의 일원인 최부가 표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보인 반응의 실상과 그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특별히 또는 깊이 문제 삼지는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도 표제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듯, 이 작품의 표제는 이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규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대부 최부가 보인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모든 문학 작품이 무언가 가치 있거나 특이한 체험을 전하는데 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기문학인 최부의 <포해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의 하나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 거기 대응했던 체험이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알려진 유교로 무장된 최부가 그런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의 실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작품 자체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른 포해록류 작품이나 관련 사례들과 견주어 보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와 이 작품을 좀더 온당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中朝聞見日記인가 漂海錄인가?

이 작품의 원제목 즉 작자 최부가 성종의 명에 따라 작성하여 올릴 때의 표제는 <中朝聞見日記>였다.⁸⁾ 하지만 최부의 死後인 명종 연간에 판본으로 간행되면서부터 <漂海錄>으로 바뀌었다. 관청에서 낸 것이든 후손이 낸 것이든 마찬가지다. 다시는 ‘중조문견일기’라는 표제는 쓰지 않았다.

왜 최부는 <중조문견일기>라 하고, 뒤의 사람들은 <포해록>으로 바꾸었을까? 이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일까?

2.1 왜 최부는 <중조문견일기>라고 하였을까?

처음 의문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자. 왜 최부는 <중조문견일기>라고 하였을까? 우선 ‘일기’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이 ‘일기’를 찬진하라고 명하였다.⁹⁾ 최부로서는 왕명대

8) 成宗 217卷, 19年(1488 戊申 / 명 홍치(弘治) 1年) 6月 22日(甲寅)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올려진 번역문과 원문을 따랐음. 이하 같음).

“최부가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일기를 엮자 아버의 상을 당한 그에게 배 50필을 내려 주다”

전 교리(校理) 최부(崔溥)가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일기(日記)를 찬진(撰進)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여럿이 아뢰기를,

“최부(崔溥)가 지금 일기(日記) 찬집(撰集)을 마치고 아버의 상(喪)에 분상(奔喪)하고자 하니, 청컨대, 말을 주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또 내가 일기(日記)를 보니, 애통한 생각이 든다. 그에게 부의(賻儀)로 배(布) 50필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前校理崔溥撰進中朝聞見日記。承政院僉啓曰：“崔溥今畢撰日記，欲奔父喪，請給馬以送。”傳曰：“可。且予見日記，可謂悽愴。其賜賻布五十匹。”

9) 성종 217권,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22일(갑인) 2번째 기사.

로 ‘일기’ 형식으로 자신의 체험을 정리하였고, ‘일기’라고 표제를 달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표제에는 문제가 있다. ‘일기’라고 표제를 단 것은 무방하나, ‘중조문견일기’라고 한정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글의 표제는 내용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았을 때, ‘중조문견일기’라는 표제 즉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일기’라는 제목은 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다.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표해’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제목이기 때문이다. ‘중조문견일기’같은 제목은 최부의 저술 아니고도 흔히 존재한다. 이른바 중국 견문기에 속하는 작품들은 모두 ‘중조문견일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최부의 기록이 다른 중국 견문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표해’의 경험이 들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부는 우리의 기대나 희망사항과는 달리, ‘표해’의 체험은 간과하였던 것일까? 중국에 상륙하여 가진 견문만을 중시한 나머지 ‘중조문견일기’라고 제목을 붙여 바쳤던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귀국 후, 자신을 위로하려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전하는 다음 대목이 그 점을 증명한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중략) 최부(崔溥)가 청파역(靑坡驛)에서 여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최부(崔溥)가 돌아오니, 임금(金)이 그 간초(艱楚)했던 것을 붙여 여겨 일기(日記)를 찬진(撰進)하도록 명하였었다.

【史臣曰：“溥之還，上憫其艱楚，命撰日記以進。”】

성종 217권,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6월 22일(갑인) 2번째 기사.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최부(崔溥)가 돌아오니, 임금(金)이 그 간초(艱楚)했던 것을 붙여 여겨 일기(日記)를 찬진(撰進)하도록 명하였었다. 최부(崔溥)가 청파역(靑坡驛)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기 때문에, 옛친구로서 조문(弔問)하는 자가 있었다. 최부(崔溥)가 응당 초상(初喪)이라 하여 조문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따금 만나서 이야기하며 자신이 표박(漂泊)하여 고생스러웠던 상황을 서술하니, 이로써 비방(誹謗)을 받았다.” 하였다.

【史臣曰：“溥之還，上憫其艱楚，命撰日記以進。”】

러 날을 머물렀기 때문에, 옛친구로서 조문(弔問)하는 자가 있었다. 최부(崔溥)가 응당 초상(初喪)이라 하여 조문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따금 만나서 이야기하며 자신이 표박(漂泊)하여 고생스러웠던 상황을 서술하니, 이로써 비방(誹謗)을 받았다.” 하였다.

【史臣曰：“溥之還，上憫其艱楚，命撰日記以進。溥留靑坡驛數日，故舊有往弔者，溥不以初喪受弔時，引接談話，敘已漂泊艱關之狀。以此致謗。”】¹⁰⁾

이 기록을 보면, 최부는 자신을 위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漂泊’ 즉 ‘풍랑을 만난 배가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돌음’의 체험을 이야기하였고, 그 때문에 주변에서 비방을 받기까지 하였다. 喪中이므로 조문을 받지 않았어야 마땅한데 조문을 받았고 표박하여 고생스러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최부는 당시의 체험에서 ‘중조문견’보다는 ‘표해’의 체험을 더 인상깊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임금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는 ‘중조문견’사실만 부각하게 하였다. 어떤 경우는 ‘표해’의 체험에, 어떤 경우는 ‘중조문견’의 체험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표현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두 가지 체험이 다 사실이고 소중하지만, 친지들 앞에서는 ‘표해’의 어려움을, 임금 앞에서는 치국에 도움이 되는 ‘중조문견’의 내용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그 친지들이 최부를 찾아가 위문하였던 이유도 최부의 ‘중조문견’ 때문이 아니라 ‘표박’의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한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 저술의 표제를 ‘중조문견일기’로 붙일 경우, ‘표해’는 ‘중조문견’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 또는 그 일부로 포함되고 말아, 그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

2.2 최부 사후에 <표해록>으로 바꾼 까닭은 무엇일까?

최부 사후에 <중조문견일기>는 ‘표해록’으로 바뀌어 간행된다. 첫 표제인

10) 성종 217권, 19년(1488 무신/명 홍치(弘治) 1년) 6월 22일(갑인) 2번째 기사.

‘중조문견일기’가 지닌 문제점이랄까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중조문견’보다는 ‘포해’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이 저술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 한다. 표제를 ‘포해록’으로 할 경우, ‘중조문견’은 ‘포해’의 연장선 상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판본에서 계속 그리한 것은, 서술분량 면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포해 체험이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포해록’이라는 표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왜 ‘일기’가 ‘록’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점이다. ‘포해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록’으로 명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필자는 <동문선>에 수록된 작품들을 토대로, ‘록’ 작품들 모두가 여행기임에 주목하여, ‘록’은 여행기라고 개념 규정한 적이 있다.¹¹⁾ 하지만 <한중록>의 경우에서 보듯, 여행기가 아닌 작품도 ‘록’을 표제로 한 경우들이 있어서, ‘록’ 표제의 작품 모두를 여행기라고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동문선이 이루어지던 당시까지는 여행기만을 ‘록’으로 명명하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오늘날의 개념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본다. 그렇기는 해도 ‘조천록’이니 ‘연행록’이나 ‘해사록’ 등에서 확인하듯, 여행기의 성격을 지닌 글들이 ‘록’의 주축을 이루었으리라 생각한다. 더 자세히 고찰해 보아야 하겠지만, 초기소설 중의 하나인 김시습(1435~1493)이 지은 소설 작품인 <용궁부연록>의 경우도 ‘록’이 지닌 여행기로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보인다. 다른 작품과는 달리, 용궁에 가서 잔치에 참여해 시문만 주고받다 온 게 아니라, 용궁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표제와 연관하여, 다른 작품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할 수 있

다. 다른 작품들의 표제는 어떤가? 이 작품과 유사한 성격의 작품으로 <표주록>이 있다. 조선 영조 때 이지항(李志恒)이 표류한 경험을 쓴 <표주록>은 부산에서 영해(寧海)로 가던 중 파선되어 일본의 북해도(北海道)까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일기체 기록으로서, 포해의 경험과 다른 나라에서의 견문, 이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어, 최부의 <포해록>과 유사한 편이다. 하지만 <표주록>은 활자본으로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부산진 첨사에게 올린 보고서적인 글이면서도 ‘표주록’이라고 함으로써, 이 저술의 특징이며 생명인 ‘포해’의 사실을 제목에 드러내고 있다. 배를 타고 떠나 육지로 돌아온 최부와는 달리, 시종 배를 타고 다니다 배로 돌아온 기록이고, 육지에 머물러도 어디에 머물렀다는 정도의 메모에 불과하기에 ‘표주록’이 적합하여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포해’의 체험과 청산도 정박의 경험만 나타날 뿐 외국 견문은 없는 장한철의 <포해록>도 이본에 따른 표제상의 이원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포해의 경험을 담은 기록들의 표제는 ‘포해록’ 또는 ‘표주록’이 당대에도 더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객관적인 처지에서 보았을 때, ‘중조문견일기’도 ‘포해록’도 이 작품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지는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두 가지 사실을 다 반영하는 제목으로 고쳐 부른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다만 표제의 변화가 머금고 있을 위의 사정과 두 표제가 지닌 의의와 한계성을 각각 의식하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리라고 보며, <중조문견일기>보다는 <포해록>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¹²⁾

12) 이 작품이 지닌 이중성 때문에, 학계에 이 작품을 해양문학으로 다루는 시각(정병욱, 최강현)과 중국전문기로 다루는 시각(성균관대학교, 이재호)이 있다. 서인범·주성지 옮김, 『포해록』(한길사, 2004), 33쪽 참고.

11) 이종건·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보진재, 1991), 229쪽.

3.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작자 최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3.1 그간의 논의에서는 어떻게 보았나?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떠난 배가 표류하여 사경을 헤매다 13일만에 중국에 상륙하기까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최부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그 동안의 글들에서는 최부는 뱃사람을 비롯하여 함께 탄 사람들과는 달리 유교 사대부로서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해록>의 작자 최부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 해신(海神)에 대한 뱃사람들의 의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¹³⁾하고 말았다. 주해서를 낸 이들조차도 "그는 수하 43명을 거느리고 태풍을 만난 대양 중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유교적 이치에 닿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¹⁴⁾고 단언하였다. 그 근거로서 다음 대목들을 들곤 하였다.

큰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였음.

이날은 날씨가 흐렸으나 풍파는 조금 그쳤으므로, 비로소 김구질회 등을 독려하여 조각이 난 돛자리를 기워서 돛을 만들고, 장대(桅竿)를 세워서 돛대를 만들고, 그전 돛대의 밑둥을 잘라서 닻을 만들어 바람을 따라 서쪽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돌아다보니, 큰 파도 사이에 물건이 있는데 그 크기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물 위에 나타난 것은 기다란 행랑(行廊)집과 같고, 거품을 뿜어 하늘을 쓰는데 물결이 뒤집히고 놀라서 움직였습니다. 사공이 배 안의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손을 흔들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배가 이미 멀리 지나간 후에 사공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저것이 바로 고래(鯨)입니다. 큰 것은 배를 삼키고 작은 것도 배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서로 만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풍랑이 다시 강해지므로 배가 가는 것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안의(安義)가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바다에 용신(龍神)이 있어 매우 욕심이 많다고 하니, 청컨대 행장에 있는 물건을 던져서 무사하기를 빕시다.”

하였으나, 신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몸이 있는 뒤에야 이런 물건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런 물건들은 모두 자기 몸 밖의 물건이다.”

하고는, 서로 다투어 염색한 의복과 군기(軍器)·철기(鐵器)·구량(口糧) 사람 수효대로 내어 주는 양식) 등 물건을 찾아내어 바다에 던졌으나, 신 역시 능히 금하지 못했습니다.(성종 19년 윤1월 6일)¹⁵⁾

풍랑이 강해지자 위기를 느낀 나머지, 모두가 용신을 달래기 위해 휴대품들을 제물로 바치자고 하였지만 최부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 대목을 보면 최부가 용신에게 제물 바치는 행위 즉 민간신앙적인 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부가 전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교 사대부로서 합리적인 자세만을 고수했다고 보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물론 서경덕(1489~1546)을 비롯하여 李滉(1501~1570)이나 李珣(~) 같은 유교 사대부나 학자들은 평소에 소신(죽음이란

15) 최부, 표해록, 閏正月 初六日.(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올려진 번역문과 원문을 따랐음. 이하 같음.)

漂大洋中。是日陰。風波少歇。始督伋叱廻等。葦片席以爲帆。建桅竿以爲樞。劈舊檣之本以爲釘。隨風西向而去。顧見洪濤間有物。不知其大也。其見於水上者。如長屋廊。噴沫射天。波翻浪駭。梢工戒舟人。搖手令勿語。舟過甚遠。然後梢工呼曰。彼乃鯨也。大則吞航。小能覆舟。今幸不相值。我其更生更生矣。入夜風濤還勁。舟行甚疾。安義曰。嘗聞海有龍神甚貪。請投行李有物。以禳謝之。臣不之應。舟人皆曰。人有此身。然後有此物。此物皆身外物。爭檢有染衣服。軍器。鐵器。口糧等物。投諸海。臣亦莫之能禁。

13) 이경엽, 앞의 글, 107쪽;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의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문학과 교육』 13(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8~39쪽.

14) 서인범·주성지, 앞의 책, 34쪽.

氣가 흠어지는 것에 불과함)에 따라 죽음에 직면해서도 전혀 흔들림없이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보고¹⁶⁾가 나와 있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교 사대부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들도 있어서, 최부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유교 사대부들도 신앙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례들

유교 사대부들이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현저한 사례¹⁷⁾로 정몽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몽주는 동방 성리학의 조종으로까지 추앙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몽주는 중국 使行길에서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한 후, 다시 철산수로를 택하여 귀국길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 때 남긴 시 <沙門島>에서 음사의 귀신 즉 중국 민간도교신 [天妃] 에게 머리를 조아려 흠향하기를 빌고 있어 충격적이다. 1629년 무렵에 水路로 명나라 사행길에 오른 이훤(1568~1630)도 16편의 해신제문을 남겼는데, 그 중의 한 대목을 보면, 이렇다. “이처럼 예물을 갖추어 향해하나니 신께서는 지극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소서.” 제문의 격식까지 갖추었으니 정몽주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정몽주만이 아니다. 배를 타고 사행길에 올랐던 다수의 인물들이 그 점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기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부여한 외교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도라 민간신앙의 그것과는 일정하게

구별되지만, 엄연히 祀典에 나와 있지 않은 이른바 淫祀 행위를 한 셈이다.

사행과는 무관하게, 다른 상황에서 음사 행위를 한 경우들도 있다. 목재 이문건의 경우가 그렇다. 집안이 을사사화를 입어 자신마저 유배당하고 絶孫의 위기가 닥치자 손자를 얻기 위해, 그리고 얻은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하여, 祈子, 問卜, 굿 등 수시로 민간신앙에 기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그 가운데에서 祈子 행위의 일환으로 옥황상제한테 올린 醮祭文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유교 사대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淫祀에 기대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부의 외손인 미암 유희춘의 경우도 그렇다. 유희춘은 주역에 의한 作卦占을 쳤다. 이는 오랜 유배생활로 말미암은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점복의 양상을 가지고 말하면 유희춘은 운명론자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¹⁹⁾ 이지항의 <표주록>에서도 주역점이 등장한다.²⁰⁾ 유교 사대부들도 한계상황에 놓이게 되

18) 이복규,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민속원, 1999).

19) 송재용, 『미암일기연구』(제이앤씨, 2008), 291~292쪽 참고.

20) 이지항, <표주록> 8일째(5월 7일인 듯하나 미상)(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올려진 번역문을 따랐음.)

유시(酉時)쯤에, 마침 한 마리의 물개(海狗)가 배의 수 리(里) 밖에 나타나더니, 배 깃에다 발을 걸치기도 하고, 혹은 동쪽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김복실이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말리고는, “물개가 배를 따르는 것으로 점괘를 만드니, 천지비배(天地否卦 64괘의 하나)를 얻었다. 배는 비록 불길하나 세효(世爻)가 재효(才爻)를 띠(帶)었고 일진(日辰)은 복덕(福德 6효)에 있어서 저손효를 말함)에 닿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달려니, 모두 끝이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그치지지를 않았다.

<표주록> 9일째(5월 8일인 듯하나 미상)

초경(初更)쯤에 서북풍(西北風)이 크게 불어 우리는 큰 바다 북편에서 이리저리 표류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또 어느 날이나 정박할 수가 있는가를 점쳐 보았더니, 풍뢰익괘(風雷益卦 64괘의 하나)를 얻었는데, 복덕이 괘신(卦身)에 닿고, 세효가 재효를 띠었다. 복서(卜書)에 ‘자효(子爻) 즉 복덕효를 말함)가 왕성하고 재효가 분명하면, 모름지기 길(吉)하고 이익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달려니, 사람들이 다 답답한 근심을 조금 풀었다. 바람은 3경쯤에 이르러 그쳤다가, 동방이 밝아지며, 곧 이어 서풍이 불어왔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에 내가 일본(日本) 지도를 본

16) 조동일, 죽음과 질병을 맞이하는 선인들의 자세, 독서·학문·문화(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33~143쪽.

17) 안동준, 『해상 사행문학과 천비신앙』, 도남학보 16(도남학회, 1997), 171~201쪽 참고.

면, 사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 주역으로 점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설(<홍길동전>, <임경업전>, <소대성전> 등)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실기 문학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유교 사대부들의 점복 행위의 실상이 표해록류와 일기문학에서 확인되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다. 이는 허구물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씌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면서, 유교 사대부가 살았던 삶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3.3 최부가 보인 신앙적인 반응과 민간신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3.3.1 최부가 보인 신앙적인 반응의 실상과 그 배경

이런 시각에서 최부의 <표해록>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최부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부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목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큰 바다 가운데서 표류했음.

이날은 캄캄한 안개가 사방에 짙 끼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저녁때가 되면서 빗발이 삼대[麻]와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조금 그쳤으나 성난 파도가 산더미와 같아서, 놀게 일 때는 푸른 하늘에 솟는 듯했고, 내려갈 때는 깊은 못에 들어가는 듯하여, 부딪치는 소리가 천지를 찢는 듯하니 모두 물에 빠져 썩어 문드러질 것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막금(莫金)과 권송(權松) 등은 눈물을 씻으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일이 있었는데, 동쪽은 다 육지였다. 또 통신사(通信使)를 배행(陪行)하여 왕래했던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 중간에 대판성(大坂城)이 있어, 황제(皇帝)라는 자가 있고, 동북방 강호(江戶)라는 곳에는 관백(關白)이 있다. 대판성에서 육지로만 이어져 강호까지 가는 데는 16~17일이 걸린다.’ 하였다. 이제 우리는 동해가 다하는 곳까지 가면 반드시 일본의 땅일 것이니, 이는 하늘이 도운 요행이다.”

“형세가 이미 급박해졌으니 다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청천대 의복을 갈아입고 대명(大命 죽음)이 이르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므로, 신도 그 말과 같이 인장(印章)과 마패(馬牌)를 품안에 넣고 상관(喪冠)과 상복(喪服)을 갖추고는 근심스럽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손을 비비고 하늘에 축원하기를,

“신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충효와 우애를 마음먹었으며, 마음에는 기망(欺罔)함이 없고 몸에는 원수진 일이 없었으며, 손으론 살해함이 없었으니, 하느님이 비록 높고 높지마는 실제로 굶어살피시는 바입니다. 지금 또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갔다가 먼 곳에서 친상(親喪)을 당하여 급히 돌아가는 길인데 신에게 무슨 죄와 과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신에게 죄가 있으면 신의 몸에만 벌이 미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배를 같이 탄 40여 인은 죄도 없으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가엾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만약 이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신다면, 바람을 거두고 파도를 그치게 하여, 신으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신의 갓 죽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하고, 노인이 된 신의 어미를 봉양하게 하십시오. 다행히 또 궁궐의 뜰 아래에 국궁(鞠躬)하게 한다면 그 후에는 비록 만 번 죽어 살지 못하더라도 신은 실로 마음에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시다. 말을 미처 마치지 않았는데, 막금이 갑자기 신의 몸을 안으면서,

“한집안의 사람들이 평생의 고락을 모두 이 몸에게 의뢰하기를, 마치 열명 장님이 1개의 지팡이에 의뢰하듯 하였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집안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가슴을 치고 뛰면서 슬피 통곡하니, 배리(陪吏) 이하 또한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손을 모아 하늘의 도움을 빌었습니다. 21)

21) 최부, 표해록, 閏正月 初五日。

漂大洋中。是日昏霧四塞。咫尺不辨。向晚雨脚如麻。至夜雨少止。怒濤如山。高若出青天。下若入深淵。轟衝擊躍。聲裂天地。胥溺臭敗。決在呼吸之間。莫金、權松等拭淚謂臣曰。勢已迫矣。無復望已。請替換衣服。以待大命之至。臣如其言。懷印與馬牌。具喪冠與服。惴惴然援手祝天曰。臣在世。唯忠孝友愛 爲心。心無欺罔。身無繇冤。手無殺害。天雖高高。實所鑑臨。今又奉君命而往。葬父喪而歸。臣不知有何罪咎。倘臣有罪。罰及臣身可也。同舟四十餘人。無罪見溺。天其敢不矜憐乎。天若哀此窮人。返風息濤。使臣得再生於世。葬臣新死之父。養臣垂老之母。幸又得鞠躬於丹墀之下。然後雖萬死無生。臣實甘心。言未訖。莫金遽抱臣身曰。一家人百年苦樂。皆仰此身。有如十盲仰一杖。今至於此。無復再見一家之人。遂擗踊而哭。陪吏以下。亦 哭泣攢手。以祈天祐。

최부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합리적으로만 대처한 게 아니다. 위에 보인 것처럼, 하늘에 빌었다. 그런데도 왜 그간의 논의에서는 이 대목을 간과했던 것일까? 그것은 유교와 유교 사대부와 신앙간의 관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심하게는 유교를 '신이 없는 종교'로 여기는 시각, 유교 사대부 역시 무신론자로 여기는 선입견 때문이 아니었을까? 과연 그 같은 생각은 정당한 것일까? 그렇다면 위에서 든 정몽주나 이문건 등의 유교 사대부가 보인 신앙적인 반응은 예외적이거나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

관련 논문²²⁾을 살펴보면, 통념과는 다르게 유교 안에도 신앙적, 종교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上帝 혹은 天에 대한 관념이 그것이다. 유교의 상제는 天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쓰였는데, 은나라 때는 상제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주나라 때부터는 공포와 존경의 대상임과 동시에 원망과 하소연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上帝나 帝라는 용어보다는 天이라는 용어가 훨씬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다. 上天, 昊天, 蒼天, 旻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天은 인간의 길흉화복의 주관자이자 국가의 운명의 결정자로서 덕 있는 자를 찾아 인민들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인격적 존재였다. 왕의 덕은 상제와 같다는 의미에서 왕을 帝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춘추전국시대 공자의 경우, 상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지만 그렇다고 『시경』과 『서경』에 나오는 종교적 측면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비록 송대의 성리학자들에 와서 상제관이 변모를 보여, 상제는 궁극적 진리인 無極이나 太極, 道와 理, 또는 天의 한 측면을 표현하는 용어로 바뀌지만, 공자가 주나라까지의 전통을 계승하여 종교적인 측면을 부정하지 않은 것은, 후대 유교 사대부들에게서 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하겠다. 실제로 이같은 배경에서, 정몽주를 비롯해 이

글의 대상인 금남 최부에 이르기까지 유교 사대부들의 신앙 행위가 이어졌다고 보인다.

3.3.2 최부의 신앙적 반응과 민간신앙과의 차이

그런데 최부가 보인 신앙적 반응은 민간신앙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 기도의 성격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했던 최부의 축원문을 다시 보면서 알아보자.

“신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충효와 우애를 마음먹었으며, 마음에는 기망(欺罔)함이 없고 몸에는 원수진 일이 없었으며, 손으론 살해함이 없었으니, 하느님이 비록 높고 높지마는 실제로 굽어살피시는 바입니다. 지금 또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갔다가 ① 먼 곳에서 친상(親喪)을 당하여 급히 돌아가는 길인데 신에게 무슨 죄와 과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신에게 죄가 있으면 신의 몸에만 벌이 미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배를 같이 탄 40여 인은 죄도 없으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가엾지 않습니까? ② 하느님께서 만약 이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신다면, 바람을 거두고 파도를 그치게 하여, 신으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신의 갓 죽은 아버를 장사지내게 하고, 노인이 된 신의 어미를 봉양하게 하십시오. 다행히 또 궁궐의 뜰 아래에 국궁(鞠躬)하게 한다면 그 후에는 비록 만 번 죽어 살지 못하더라도 신은 실로 마음에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臣在世。唯忠孝友愛 爲心。心無欺罔。身無讎冤。手無殺害。天雖高高。實所鑑臨。今又奉君命而往。靠父喪而歸。臣不知有何罪咎。倘臣有罪。罰及臣身可也。同舟四十餘人。無罪見溺。天其敢不矜憐乎。天若哀此窮人。返風息濤。使臣得再生於世。葬臣新死之父。養臣垂老之母。幸又得鞠躬於丹墀之下。然後雖萬死無生。臣實甘心。言未訖。莫金遽抱臣身曰。一家人百年苦樂。皆仰此身。有如十盲仰一杖。今至於此。無復再見一家之人。遂擗踊而哭。陪吏以下。亦 哭泣攢手。以祈天祐。).

첫째, 최부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살펴보자. ①을

22) 이광호, 『상제관을 중심으로 본 유학과 기독교의 만남』, 『유교사상연구』 19(한국 유교학회, 2003).

보면, 최부는 죽음의 위기가 죄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파선당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은 자신의 죄 탓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선하였으니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할 듯한데, 최부는 “먼 곳에서 친상(親喪)을 당하여 급히 돌아가는 길”임을 강조함으로써, 날씨를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행선한 것은 죄도 과실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도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하늘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거기 깔려 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최부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죄가 있어서 하늘이 이런 고난을 내렸다고 생각해 ‘가없’게 여겨 주시길 축원하고 있다.²³⁾

23) 최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1월 14일 기록에서는, 배가 표류하게 된 것은 자신이 순풍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최부는 자신의 불찰로 표류의 고난이 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신이나 하늘을 섬기고 안 섬기고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역경(易經) 길흉(吉凶) 회린(悔吝)에 대한 변증설에서 “세상에는 진실로 악한 것을 하고도 길함을 얻는 자가 있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흉함을 만나는 자가 있으나, 이는 번고요 떼뻗한 이치는 아니니, 번고는 떼뻗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 (중략) 저 간사한 자의 복됨과, 허물이 없는 자의 재앙은 다 우연의 소치이므로 오래지 않아 그 떼뻗함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한 것과 동계의 인식을 최부는 가졌고, 그런 바탕에서 기도도 드린 것이라고 여겨진다. 1월 14일자 기록에서 최부의 발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천지(天地)는 사심(私心)이 없고, 귀신은 말없이 운행(運行)하면서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주되, 오직 그것이 공평할 뿐이다. 악한 사람이 귀신을 아침해 섬겨서 복을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는가? 착한 사람이 사설(邪說)에 미혹되지 않아서 부당하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재앙을 주겠는가? 일찍이 천지와 귀신이 음식으로 아침해 섬긴다고 해서 사람에게 재앙과 복을 준다고 생각하겠는가? 절대로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제사도 일정한 등급이 있으니, 사대부와 서인(庶人)이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 일이다. 예절에 어긋난 제사는 곧 음식(淫祀)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 지냄)인데, 음식을 하면서 복을 얻은 일은 나는 보지 못하였다. 너희들 제주도 사람들은 귀신을 몹시 좋아하여 산택(山澤)과 천수(川藪)에 모두 신사를 설치해서, 광양 등의 신당(神堂) 같은 데는 아침저녁으로 공경하여 제사를 지냄이 지극하지 않은 점이 없었으니, 그 바다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표류하고 침몰되는 근심이 없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떤 배가 표류하고, 내일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민간신앙에서의 인식은 최부의 생각과는 다르다. 귀신을 공경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1월 14일자 일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큰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였음.

이날은 맑았습니다. 신시에 배가 표류하여 한 섬에 이르니 동, 서, 남의 3면(面)이 아득하게 끝없이 멀어 눈을 가리는 것이 없었으나, 다만 북풍을 피할 만한 곳은 있었는데 도리어 닳이 없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를 출발할 때는 배가 매우 큰데도 실을 물건이 없으므로 몇 개의 돌덩이를 배 안에 실어서 배가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허상리(許尙理) 등이 새끼줄로 그 돌 4개를 엮어매어 합쳐서 임시 닳을 만들어 배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안의(安義)가 군인 등과 서로 말하여 신에게 알아듣도록 하기를,

“이번 행차가 표류해 죽게 될 까닭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고로 무릇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光州) 무등산(無等山)의 신사(神祠)와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신사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

어떤 배가 침몰되어, 표류하고 침몰하는 배가 앞뒤로 서로 잇따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신(神)의 신령스런 감응이 있는 일이었는가? 제사를 지내어 능히 복을 받는 일이었는가? 하물며 지금 함께 배를 탄 우리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다만 나 한 사람뿐이고, 너희 군인들은 모두 성심으로 제계하여 제사를 지내고 왔으니, 신이 만약 영험이 있다면 어찌 나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까닭으로 너희들 40여 명이 제계하여 제사를 지낸 정성을 폐(廢)할 수 있겠는가? 우리 배가 표류한 것은 오로지 행리(行李 여행)가 전도되어 배가 떠날 때 순풍을 잘 기다리지 않은 데서 그렇게 된 것인데, 도리어 제사를 지내지 않은 일로 나를 책망하게 되니, 또한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臣亦諱之曰。天地無私。鬼神機運。福善禍淫。唯其公耳。人有惡者詔事以徼福。則其可福之乎。人有善者不惑邪說。不爲黷祭。則其可禍之乎。曾謂天地鬼神。爲詔事飲食而降禍福於人乎。萬萬無此理也。況祭有常等。士庶人而祭山川。非禮也。非禮之祭。乃淫祀也。淫祀以獲福者。我未之見也。爾濟州人。酷好鬼神。山澤川藪。俱設神祠。至如廣壤等堂。朝夕敬祀。靡所不至。其於涉海。宜無漂沈之患。然而今日某船漂。明日某船沈。漂沈之船。前後相望。是果神有靈應歟。祭能受福歟。況今我 同舟人不祭者。唯我一人耳。爾軍人皆誠心齋祭而來。神若有靈。豈以我一人不祭之故。廢爾四十餘人齋祭之誠也。我之漂船。專是行李顛倒。不善候風之所致。反以廢祭尤我。不亦惑乎。)(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올려진 번역문과 원문을 따랐음.)

오는 사람들도 모두 광양(廣壤)의 차귀(遮歸) · 천외(川外) · 초춘(楚春) 등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났던 까닭으로, 신(神)의 도움을 받아 큰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경차관은 특별히 큰소리를 치면서 이를 그르케 여겨, 올 때도 무등산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갈 때도 광양의 여러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 신을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신 또한 돌보지 아니하여 이러한 극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하니, 군인들은 동조하면서 모두 신(臣)을 책망하였으나(十四日。漂大洋中。是日晴。晡時。漂至一島。東西南三面。一望無際。唯可避北風處。顧以無碇爲憂。初發濟州時。舟甚大無載物。故輸若干石塊于舟中。使不撓動。至是。尙理等以絞索纏其石四箇。合爲假碇。以留泊焉。安義與軍人等相與言。使之聞之於臣曰。此行所以至於漂死者。我知之矣。自古以來。凡往濟州者。皆祭於光州無等山祠及羅州錦城山祠。自濟州出陸者。又皆祭於廣壤。遮歸。川外。楚春等祠。然後行。故受神之祐。利涉大海。今此敬差官特大言非之。來不祭無等。錦城之祠。去不祭廣壤諸祠。慢神不敬。神亦不恤。使至此極。尙誰咎哉。軍人和之。咸咎臣。)

둘째, 기도의 성격 면에서, 최부의 축원문은 민간신앙과 구별된다. ②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적인 기도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부의 기도는 동승한 40여 인을 위한 기도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무죄한 40여 인이 희생당할 수는 없다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²⁴⁾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40여 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 최부는, 그 다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신의 갖죽은 아버를 장사지내게 하고, 노인이 된 신의 어미를 봉양하게 하십시오. 다행히 또 궁궐의 뜰 아래에 국궁(鞠躬)하게 한다면 그 후에는 비록 만 번

24)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주소서(출애굽기 32장 30~32절)

죽어 살지 못하더라도 신은 실로 마음에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한다.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하였지만 이 역시 유교에서 강조하는 **孝와 忠**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부모와 임금 또는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이런 면에서 최부의 기도는 민간신앙의 기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한 최부의 인식은 무엇일까? 이 점에서도 최부는 민간신앙과는 구별된다. 다음 대목을 보자.

큰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였음.

이날은 흐리고 풍세(風勢)는 매우 험악하고 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깔은 희었습니다. 정의 현감(旌義縣監) 채운혜(蔡允惠)가 전에 신에게 말하기를,

“제주의 부모(父老)들 말에,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서남쪽 멀리 떨어진 지역의 바다 밖에 백사정(白沙汀) 일대가 있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인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지금 보건대 흰 모래가 아니라 이 흰 바다를 바라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신은 권산(權山) 등에게 말하기를,

“고려 때 너희 제주(濟州)가 원(元) 나라에 조공(朝貢)할 적에는 명월포(明月浦)에서 순풍을 만나 바른 길(直路)을 얻어서 7주야(晝夜) 동안에 흰 바다를 지나 큰 바다를 건넜었는데, 지금 우리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으니 바른 길과 둘러 가는 길(散路)을 알 수가 없다. 다행히 흰 바다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마 중국의 지경도 반드시 가까울 것이다. 만약 중국에 정박할 수 있다면 중국은 우리 부모의 나라다. 이런 때를 당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모두 하늘이 하는 일이며, 바람이 순조롭게 불고 거슬러 부는 것은 하늘이 실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동풍이 변함 없이 이미 여러 날을 지나고 있으니, 아마도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마음이 있는 듯하다. 그대들은 각기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힘써 하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5)(윤1월 7일)
7일)

이 대목은 이미 최부가 40여 인의 생명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이틀 뒤의 기록이다. 이 대목에서 최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모두 하늘이 하는 일이며, 바람이 순조롭게 불고 거슬러 부는 것은 하늘이 실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동풍이 변함없이 이미 여러 날을 지나고 있으니, 아마도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마음이 있는 듯하다. 그대들은 각기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힘써서 하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기도는 하였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철저히 하늘에 맡기는 자세이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모두 하늘이 하는 일이며, 바람이 순조롭게 불고 거슬러 부는 것은 하늘이 실제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세이다.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거나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 대신 최부는 기도한 후에, 바람의 흐름을 예의 주시한 듯하다. 그것으로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듯하다. 그랬

기에 “지금 동풍이 변함없이 이미 여러 날을 지나고 있으니, 아마도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마음이 있는 듯하다. 그대들은 각기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힘써서 하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그것을 입증한다. 어쩌면 그 이후에 벌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원을 독려하면서 고난 극복의 드라마를 지휘한 것²⁶⁾도 바로 이같은 확신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4. 맺음말

위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부가 지은 <표해록>의 표제가 원래의 것과 나중의 것이 다른데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다루었다. 그 결과, 최부는 왕명에 따라 ‘일기’를 표제로 하되, 자신의 내심에는 ‘표해’의 체험이 더욱 강렬할 수 있었지만, 임금의 통치를 위해서는 ‘중국견문’의 내용이 중요하다 고 보아, <중조문견일기>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부 사후에 이 책을 다시 간행할 때는, ‘표해’야말로 이 기록의 개성 혹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아 <표해록>으로 고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당시에 ‘록’은 주로 여행기를 담은 글이나 책의 표제에 많이 쓰였기에, 다소 모호한 ‘일기’라는 표현보다 ‘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25) 최부, 표해록, 閏正月 初七日。

漂大洋中。是日陰。風勢甚惡。波浪洶湧。海色白。旌義縣監蔡允惠嘗謂臣曰。濟州父老云。天晴日登漢拏山絕頂。則遙望西南絕域海外。若有白沙汀一帶者。以今觀之。非白沙。乃望此白海而云也。臣謂權山等曰。在高麗時。爾濟州朝大元。自明月浦。遇便風得直路。七晝夜之間。過白海渡大洋。今我漂海。直路散路。不可知也。幸得入白海之中。則竊疑中國之界必近矣。若得泊中國。則中國是我父母之邦也。當此時生我死我。皆天所爲。而風之順逆。天實主張。今東風不變。已經累日。則抑竊疑天必有生我之心也。爾等其各勉人所當爲之事。以聽天所命耳。至暮風又變東而北。權山猶指舵向西。夜未央。暴濤激躍。又駕入天篷。被人頭面。人皆瞑目不能開。領船梢工。皆痛哭莫知所爲。臣亦知不免於死。裂單衾纏身數圍。縛之于舟中橫木。蓋欲死後屍與舟久不相離也。莫金, 巨伊山。皆哭泣聯抱臣身曰。死且同歸。安義大哭曰。吾與其飲鹹水而死。莫如自絕。以弓絃自縊。金粟救之得不死。臣叫領船梢工等曰。舟已破乎。曰。否。曰。舵已失乎。曰。否。即囑謂巨伊山曰。波濤雖險。事勢雖迫。舟實牢固。不至易敗。若能汲殆盡。則庶幾得生。汝實壯健。汝又往首倡汲之。巨伊山即命欲汲。汲水之器已盡破。叫號無據。安義即以刀裂去小鼓面以爲器。授巨伊山。巨伊山與李孝枝, 權松, 都終, 玄山等 盡力以汲水。猶深一膝。孝子, 程保, 李楨, 金重等或親自刮取。或立督軍人。仇叱廻等七八人。相繼刮盡。僅得不見敗沒。

26) 윤정월 10일 기록에서 그 처절한 노력들을 볼 수 있다. 조금 남은 황감과 술을 아껴가며 차례로 갈증을 면하기, 그마저 떨어지자 마른 쌀을 잘게 찢고 제 오줌을 움켜서 마시기, 오줌마저 떨어지자 마침 내리는 빗물을 모자나 돛자리에, 또는 돛대와 노를 세워 중간중간에 종이 끈을 묶어서 물방울을 받아 혀로 핥기, 특히 자신이 간수한 옷들을 꺼내놓아 거기에 비를 받아 흠뻑 젖게 한 후에 짜내어 병에 담아 술가락으로 나누어 마시게 하기 등이 그것이다.

둘째, 유교 사대부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최부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단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유교 문맥 안에서 지속되어 온 전통의 한 측면이었으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이어져 발견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만, 민간신앙에서의 기복적인 성격의 반응은 아니었으며, 타인을 위하거나 유교 사대부로서의 도리인 효와 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하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악하게 살면 재앙이 올 뿐, 제사를 비롯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화와 복이 결정될 수 없다는 성리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남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에는 하늘에 기도하기도 했던 사대부의 또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 결과 희망의 조짐이 한번 보이자, 하늘이 살려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는 엄숙하기만 하다.

셋째,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정약용을 위시한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유교의 상제관념 혹은 상제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마침내 기독교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조선전기의 인물인 최부가 天에게 기도한 것도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조명할 수는 없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최부의 문집인 『금남집』을 살펴서, 최부의 귀신관 혹은 신앙관을 살펴보고 그 양상과 표해록간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최부가 표해 체험을 하고 귀국한 이후의 삶과 의식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표해’ 체험을 다룬 외국의 작품들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기주, 「조선중기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정치활동」, 『역사학연구』 24, 호남사학회, 2005.
- 김기주, 「표해록의 저자 최박 연구」, 『역사학연구』 19, 호남사학회, 2002.
- 박원호, 「최부 표해록 번역 술평」, 『한국사학보』 21, 2005.
- 박원호, 「최부 표해록 판본고」, 『서지학연구』 26, 서지학회, 2003.
-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 <표해록(漂海錄)>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 동국사학회, 2002.
-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림파 관료의 중국체험」,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 안동준, 「해상 사행문학과 천비신앙」, 『도남학보』 16, 도남학회, 1997.
- 이광호, 「상제관을 중심으로 본 유학과 기독교의 만남」, 『유교사상연구』 19, 한국유교학회, 2003.
- 이복규,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민속원』, 1999.
- 이종건·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 보진재, 1991.
- 장덕순, 이국기행의 「금남표해록」, 『한국수필문학사』, 박이정, 1995.
- 조동일, 「죽음과 질병을 맞이하는 선인들의 자세」, 『독서·학문·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주성지, 「표해록을 통한 한중항로 분석」, 『동국사학』 37, 동국사학회, 2002.
- 최래옥, 「漂海錄 研究」, 『비교민속학』 10, 비교민속학회, 1993.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Two Enigmas in Choi Bu's Pyohaerok

Lee, Bok-kyu

This paper addresses two problems concerning Pyohaerok by Choi Bu that have been unnoticed or neglected so far in the academic circle. One is on the existence of dual title: Jungjo Mungyeon Ilgi and Pyohaerok. It is doubtful whether the two titles were intended to mean the same or only one title was meant to be appropriate. The other concern is how Choi Bu, a member of Confucian magnates who followed Jeompiljae Kim Jongjik, actually responded to the life-threatening experience of going adrift at sea and what it truly meant to him on the spot. The existing studies seem to overlook a possible significance of these questions, often bypassing the truth.

1. Why did he originally entitled the book Jungjo Mungyeon Ilgi, but why was it posthumously retitled to Pyohaerok?

According to Joseon Wangjo Sillok, King Seonjong recommended him to write a journal. Choi Bu, under obligation, narrated his experience in a form of journal to dedicate it to the king, so that the title included 'journal.' But a question arises: why did he restrict himself then by entitling his journal Jungjo Mungyeon Ilgi instead of directly mentioning the days or experiences lost at sea? Did he think little of his wreckage

experience? Very unlikely. Literature has it that Choi Bu told those who came to comfort him all the stories of his boat's going adrift at sea after wreckage, even to the extent that he came to be slandered afterwards. All these facts considered, it is more likely that he had to use two tactics for narration: candidness before his friends and a lesson-gathering, royalty-proving attitude before the king's court. The reason why the book came to adopt the title Pyohaerok after his death is deemed to hint at the awareness that the inappropriateness or the limitation of the first title should be anyhow overcome.

2. How did the author respond to this crisis of life and death?

In the existing studies, Choi Bu's scholarly nonchalant attitude unlike that of the crew members was underscored. It is beyond our imagination, however, that he only stuck to a rational attitude as a Confucian magnate rather than rely upon a religious supplication. Facing an extreme danger, in fact, the Confucian magnates in Joseon tended to respond religiously contrary to our common belief, which makes us in limbo so far as Choi Bu's reluctance to pray for heavenly salvation.

A scrutiny into Pyohaerok indicates, however, that Choi Bu was not an exception since there was a scene where the author's religious appeal was present without doubt. In front of death, Choi Bu prayed to Heaven, not merely trying to rationally cope with the crisis. It is noteworthy that the academic circle has not properly addressed the problem yet. The reason might be a prejudi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Confucian magnates and their religion. The prejudice could extend to the biased belief that there is no idea of God in Confucianism, all the magnates thus being naturally atheists.

The religious attitude of Choi Bu is different from that of shamanism since it is differentiated in terms of perceived cause of suffering, the nature of prayer and so on. First, he ascribed the cause of suffering to his own sins. Second, his prayer is not just for personal benefit, unlike the shamanistic tradition. More precisely, it is a petition for the lives of 40 other crew members since he prays for mercy making it clear that the lives of innocent people should not be claimed. This prayer of Choi Bu's as a Confucian magnate runs up to a redemptive prayer, which is believed to set an example for today's elite.

Key words : Choi Bu(崔溥), Pyohaerok(漂海錄), Jungjo Mungyeon Ilgi, Sea literature, Prayer, Confucian magnate